



## ‘골든블루’ 오랜 시간 인정받아온 36.5도 프리미엄 위스키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주)골든블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36.5도 정통 저도수 위스키 ‘골든블루’를 2009년 12월에 선보이며 주류업계에 뛰어 들었다. 지난 11년 동안 ‘골든블루’ 외에도 모던 프리미엄 위스키 ‘팬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덴마크 왕실 공식 지정 맥주 ‘칼스버그’, 벨기에 에일 맥주 ‘그림버겐’, 프리미엄 숙성 증류주 ‘혼’, ‘골든블루 더블샷 하이볼’ 등을 지속해서 출시하며, 종합주류회사로 발전해왔다.

이처럼 (주)골든블루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골든블루’가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덕분이다. ‘저도수 위스키’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던 국내 위스키 시장이었지만, 36.5도의 ‘골든블루’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40도 미만의 위스키가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골든블루’는 출시 8주년인 2017년에 국내 정통 위스키 1위 자리에 올랐으며, 이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1등 위스키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이 가운데 ‘골든블루 사피루스’가 유난히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아왔다.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2012년 11월 세상에 나온 후, 2017년 한 차례의 리뉴얼을 거쳤으며 그 해에 국내 1등 판매 위스키 제품에 등극했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도 출시 50일 만에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시장에서 15%대 점유율 달성이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으며, 현재는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리더 브랜드로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이처럼 11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아온 ‘골든블루’는 2020년 5월, ‘골든블루 더블샷 하이볼’이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소비자 앞에 나타났다. 술과 탄산수를 결합해서 마시는 하드 셀처(Hard Seltzer) 트렌드가 확대됨에 따라, (주)골든블루가 선보인 ‘골든블루 더블샷 하이볼’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사용했으며 하이볼 마스터라는 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골든블루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우수한 품질의 ‘골든블루’를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류의 자가 소비 추세가 점차 커짐에 따라 (주)골든블루는 가정용 채널 타깃용 위스키를 선보여 가정용 위스키 시장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박희준 부사장은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더욱 공들여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겠다”며 “2021년에는 위축된 국내 위스키 시장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골든블루’ 해외 시장 진출 범위 확대에도 집중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①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